삼성전자·지스트, 반도체·가전 전문인력 키운다

27일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협약
30명 모집…등록·장학금 지원
'지능형 모터트랙' 운영 협력도

삼성전자와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이 반도체와 가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21일 삼성전자와 지스트에 따르면 양측은 오는 27일 반도체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학사와 석사 통합과정으로 운영되는 반도체 계약학과로, 교육 기간은 총 5년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신입생을 선발해 내년 3월부터 계약학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모집인원은 30명이다.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반도체학과 신설은 실무역량을 갖춘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전액 부담하고 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 취업하게 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들이 실무 역량을 두루 갖춘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인턴으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삼성전자 임직원들도 멘토로 참여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지스트는 지난달 가전제품의 핵심인 모터 기술을 고도화할 인재 육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지스트는 지난달 15일 채용연계형 양성 과정인 '지능형 모터 트랙' 신설 협약을 체결했다. 지능형 모터 트랙은 석사 과정으로 운영되며, 올해부터 매년 15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모터는 가전 제품의 에너지효율 제고와 내구성 강화에 핵심적인 기술로, 지능형 모터 트랙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모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기계 분야의 맞춤형 커리큘럼을 통해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재학 기간 등록금과 학비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며, 졸업 후 삼성전자에 입사하게 된다. 또 삼성전자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 해외 저명 학회 참관 등 다양한 체험 기회도 제공받는다.

/오지현 기자

전남농기원, '축산악취·탄소중립' 잡는다

정부 공모 국비 30억 확보
저메탄 발효사료 등 개발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1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복합기술 투입 저탄소 악취저감 모델 개발 실증연구'와 농촌진흥청의 '미생물 활용 반추가축 발효사료 제조기술 개발 및 급여효과 구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농기원에 따르면 최근 과투입 축산업 생산구조로 인한 냄새·분뇨처리에 관한 환경규제가 강화됐고, 축산업 규모화와 혁신도시 조성 등 도시화에 따른 축산악취 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축산분야는 2030년 온실가스 30% 감축과 저메탄 사료 30% 보급(2050년 100%)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전남농업기술원은 환경친화 축산모델 조성을 위해 '복합기술 투입 저탄소 악취저감 모델' 기술을 고도화해 개별농가 단위가 아닌 축산농가가 밀집된 마을단위에 미생물 농장 구축, 악취·미세먼지 제어, 분뇨 처리단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 융·복합기술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메탄 발효사료 개발을 통해 한우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사료 섭취량과 가축 분 질소 발생량을 줄이는 미생물과 바이오 소재 개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사료비 절감 정밀 사양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축산악취·분뇨처리·온실가스 감축 등 축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자체 및 관련 기업과 협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축산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정부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지난해 축산냄새 저감 연구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악취 저감과 돼지 소화 효율 향상 미생물 개발·보급 ▲미생물과 환경공학 기술을 접목한 환경개선 우수모델 개발 연구를 추진했다. 이를 도내 양돈농가에서 실증한 결과, 악취 물질인 암모니아 83%, 황화수소 92%, 복합악취 65%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정근산 기자

반려식물 나눠주기 식목철을 맞아 21일 오전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에서 임택 동구청장과 관계자들이 시민들에게 천리향, 목수국 등을 나눠주고 있다. /김태규 기자

여수 하화도·진도 관매도·신안 반월박지도

'찾아가고 싶은 봄섬' 선정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이 공동으로 선정한 '찾아가고 싶은 봄섬' 5개 섬에 여수 하화도, 진도 관매도, 신안 반월박지도 등 전남 3개 섬이 선정됐다.

여수 하화도는 파도의 침식 작용과 풍화작용으로 해안에 생긴 낭떠러지인 해식애로 이뤄진 천혜의 절벽과 진달래, 유채꽃 등 야생화가 섬 전체에 만발해 꽃섬으로 불린다. 해안가를 따라 탐방하는 둘레길(꽃섬길)과 출렁다리가 있으며 야생화 단지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경관이 일품이다.

진도 관매도는 지난해 여름 캠핑섬 선정에 이어 올해 봄의 전령, 유채꽃 섬으로 선정됐다. 유휴 농경지를 활용해 조성한 10ha 면적에 만발하는 유채꽃은 4~5월 섬 중심부터 노랗게 물들인다. 선박을 활용한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드넓은 유채꽃밭은 관매도를 탐방하는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신안 반월박지도는 퍼플섬으로 유명하다. 반달 모양의 반월도와 박 모양의 박지도가 보랏빛 다리로 연결됐다. 퍼플섬은 참도라지(왕도라지)와 콜라비, 들녘에 만개한 꿀풀 등에 착안해 개발한 섬으로 세계관광기구(UNWTO) '최우수 관광마을'과 한국관광공사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됐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21일 "전남도·시군·주민이 함께 가꾼 '가고 싶은 섬'이 이번 봄 섬으로 다수 선정된 것은 주민이 계속해 노력한 결과"라며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와 코레일이 함께 추진하는 '기차로 떠나는 가고 싶은 섬 여행상품'에 진도 관매도와 신안 반월박지도가 포함돼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시, 미래 차 국가산단 추진 전략 고심

강 시장, 23번째 월요대화
"AI·빅데이터 융복합 구현"

광주시가 최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미래 차 산단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 전략 수립에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0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22번째 월요대화를 열어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에 대해 지역혁신·연구기관 및 자동차산업계 관계자 등과 의견을 나눴다.

최전 광주그린카진흥원 사업본부장은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가산단 추진 배경 및 조성 절차, 미래차 국가산단의 방향, 인프라 구축, 미래차 산업생태계 확장방안 등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최 본부장은 "미래차 국가산단은 빛그린국가산단·진곡산단과 연계해 미래차 부품개발-생산-인증-완성차-리사이클링의 선순환 생태계를 이루는 미래차산업의 혁신거점이 돼야 한다"며 "여기에 광주의 AI, 광·가전 등 연관 산업을 융합해 완벽한 미래차산업 밸류체인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친환경자동차 부품집적단지 활용 ▲자율주행 기술실증 시험공간 활용 ▲지역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미래차 인력양성 등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신재봉 광주자동차산학연협의회장은 "광주에서 39년째 기아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래차 국가산단 유치는 현대차의 기아 인수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선물인 것 같다"며 "지역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린다. 우수인재들이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강기정 시장은 "미래 근거지를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국가산단 유치에 나서 멋지게 성공했다"며 "이제 100만평을 무엇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고민이 더 깊어졌다. 미래형 산단을 조성하는데 아이디어와 지역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길용현 기자

광주·전남 KTX역 이용객, 코로나 이전 회복

광전연 "대중교통 연계 필요"

지난해 광주·전남 KTX 정차역 이용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전남연구원이 발간한 '한눈에 보는 광주전남 이슈 &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평균 KTX역 이용객은 광주 송정역 1만1,444명, 순천역 4,834명, 목포역 4,235명 등 순이었다.

2020년에 전년 대비 적게는 28.5%(여천역), 많게는 40.2%(여수엑스포역)까지 떨어진 이용객 수는 2021년 소폭 상승해 지난해에는 2019년 수준을 회복했다. 2019년에는 광주 송정역 1만2,194명, 순천역 3,966명, 목포역 4,213명이었다.

2014년과 2022년 일평균 이용객을 비교하면 광주 송정역은 3,327명에서 8,117명이 늘었으며 증가율 기준으로는 나주역이 428명으로 1,905명으로 늘어 최대폭을 기록했다.

이번 통계는 한국철도공사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정근산 기자